

소문난 춤꾼들 광주에 다 모인다

문화전당서 6월 9~11일 댄스 배틀 '스트릿컬처 페스타' 첫 대회 프린지페스티벌과 협업 공동 브랜딩...플리마켓·푸드트럭 등 다채

'2023 광주 스트릿컬처 페스타'가 6월 9~11일 사흘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광주 스트릿컬처 페스타'는 광주 연고 댄스팀인 빛고을댄서스가 2014년부터 해마다 광주에서 개최해온 전국 규모 스트리트 댄스 경연대회 '배틀라인업'을 광주시와 공동으로 확장한 것이다.

빛고을댄서스는 2013년 광주에서 창단된 자생 댄스팀으로 여러 장르의 댄스들이 소속돼 있다.

대표를 맡고 있는 오천은 힙합을 주 장르로 국내 외대회에서 개인 우승만 50회가 넘는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Mnet '스트릿 맨 파이터'의 엠비셔스쿠루에서 리더를 맡을 정도로 유명한 댄서다.

이번 '배틀라인업8'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에서 유료 참

가대회로 열리며 힙합, 왁킹, 팝핀, 오픈스타일 등 4종목에서 1대 1 개인 경연으로 치러진다.

별써부터 국내 참가자 1150명과 외국인 참가자 100여명이 배틀 참가를 신청하는 등 경연 열기도 뜨겁다.

특히 백구영, 와이즈엑스(YGX), 엠비셔스(MBITIOUS) 등 국내 유명댄서가 게스트로 출연해 댄스애호가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마이클 잭슨과 머라이어 캐리 등 뮤직비디오에 다수 출연한 힙합댄서 링크(Henry Link)와 세계적 스트리트댄서 미스터 위글스(MR. WIGGLES) 등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경연의 질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이번 '2023 광주 스트릿컬처 페스타'의 가장 큰 특징은 광주 대표 시민참여형 거리축제 '프린지페스티벌'과 협업해 스트리트 댄스를 주제로 축제를

공동 브랜드했다는 점이다.

6월 10~1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열리는 프린지페스티벌의 '스트릿댄스 온 스테이지'에는 전국의 댄서팀 퍼포먼스 경연이 펼쳐진다.

또 온라인 접수 참가팀의 사전예선을 거쳐 일반부 15팀, 청소년부 20팀 등 총 35팀의 본선 진출자가 무대에서 기량을 펼치고, 와이즈엑스(YGX) 등 유명 댄서팀의 쇼케이스도 예정돼 있다.

이 밖에도 스트리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플리마켓과 푸드트럭 등 다양한 부대 행사 등이 마련된다.

김준영 광주시 생활력추진본부장은 "서울로 가지 않고도 연고지인 광주에서 스트리트 댄스 부흥을 위해 노력해온 청년들의 의지와 열정에 감사한다"며 "배틀라인업을 발전시켜 국내외 춤꾼과 이들을 보기 위한 수많은 엠제트(MZ)세대가 해마다 광주로 몰려오는 K-스트리트 컬처 대표축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22일 오전 도청 접견실에서 전남 농수산물을 활용한 외식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CJ푸드빌은 장성군 사과와 산나물, 완도군 비파를 활용해 레스토랑의 드레싱과 샐러드로 활용하게 된다. (왼쪽부터) 신우철 완도군수, 김영록 전남지사, CJ푸드빌 김찬호 대표, 김한중 장성군수. <전남도제공>

전남 농수산물 외식상품 출시·판매

전남도-CJ푸드빌 협약...완도·장성 생산물, 간편식 등 개발

전남도가 22일 도청 귀빈실에서 CJ푸드빌, 장성군, 완도군과 함께 우수 지역 농수산물 판로 개척과 농어민 소득 증진을 위한 '전남 농수산물 활용 외식상품 개발·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선 김영록 전남지사, 김찬호 CJ푸드빌 대표이사, 김한중 장성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등이 참석해 지역 농어민이 정성껏 생산한 우수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판로 확보에 힘을 보태고 관련 기업과의 상생·발전 도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CJ푸드빌은 자사 외식브랜드

인 빙스, 더플레이스, 제일제면소 등의 신메뉴 개발 및 외식레스토랑 간편식(RMR) 출시·판매에 전남도의 농수산물을 활용하게 된다. 또 베이커리 브랜드 푸레주르와도 계절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출시한다.

특히 6월부터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운 완도산 전복을 활용해 더플레이스의 파스타, 샐러드, 제일제면소의 면 요리, 빙스의 전복 스테이크, 샐러드바 메뉴를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장성 사과와 산나물, 완도 비파를

활용해 양식당 양념(드레싱)과 샐러드로 사용한다. 특히 사과를 이용한 빵, 잼, 케이크, 음료 등이 푸레주르를 통해 9월부터 소비자를 만나게 된다.

전남 농수산물을 이용해 출시한 상품은 CJ푸드빌의 다양한 홍보채널인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홍보되며 이커머스 채널을 통한 손쉬운 구매도 지원한다.

김영록 지사는 "CJ푸드빌과 협약은 농수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게 큰 힘이 되고, 전남 농수산물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기업과 협력해 전남 농수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부가가치 전략을 도입해 어려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동부지역본부 본부장 2급 상향

7월 개청...“실·국 총괄 제2청사 역할 기대”

오는 7월 개청을 앞둔 전남 동부지역본부 본부장이 2급으로 상향된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가 동부지역본부 본부장을 2급 직제로 승진함에 따라 2청사로서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개청 예정인 동부지역본부는 2급 본부장이 소속 실·국을 총괄,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 현지에서 신속

하게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동부지역본부는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무안으로 이전하면서 원거리 동부권 주민의 민원 편의를 위해 2005년 출장소로 출발했다. 이후 2014년 환경부서, 2018년 산림부서가 차례로 이전한 데 이어 4개 실·국 체제로 확대 개편을 위해 5월 10일까지 임박예고를 한 상태다.

전남도는 동부권으로 이동하는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주지원비 등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6월 도의회 회기 중 조직개편안과 추경 예산 통과 등 7월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2급 본부장이 승진해 동부지역본부가 동부권의 대표 행정기관이자, 실질적 제2청사로서 기능을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 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안과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서부권 의원들은 공공행정을 제외한 경제력, 인구수 등 모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쏠림이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마늘 가격안정 선제대책 정부 건의

전남도, 생산량 증가 따른 수매 확대·수입산 관리 강화 등

전남도가 2023년산 마늘 생산량이 평년보다 늘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격 안정을 위해 수매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선제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본격적인 수확기인 6월 이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등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2023년산 마늘 정부 수매비축량을 2022년보다

2만 톤 확대 ▲수매계획 조기 발표 ▲수입산 관리 강화 ▲시장격리 등 실효적 종합대책을 건의했다. 또 마늘 가격 및 생산비 보장을 위한 중장기적 수급안정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국 마늘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943ha가 늘어난 2만4629ha로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3만6000t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2022년산 난지형 마늘(남도종 등)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만4000t으로 5월까지 소진되지 않으면 가격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도 한 이유다. 전남도는 또 도 차원에서도 농협과 함께 하나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도 남도장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20~30% 할인행사를 추진해 가공업체 등 대량 소비처와 구매협약 등 소비 촉진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 농수산물도매시장 간마늘 거래가격은 18일 기준 kg당 6680원으로 지난해보다 23% 하락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에 프랑스 '르 소레알' 크루즈 입항

18개국 343명 3개 코스 관광...올 3월 美 기항지 설명회 성과

프랑스 포난의 1만900t급 '르 소레알' (Le Soleal) 크루즈가 프랑스, 미국, 호주 등 18개국으로 구성된 승객과 승무원 343명을 태우고 지난 21일 여수엑스포터미널에 입항했다.

르 소레알 (Le Soleal) 크루즈 승객들은 순천 낙안읍성,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순신광장 등 전남 동부권 주요 관광지로 구성된 3개 코스 관광을 둘러본 후 이날 오후 일본 후쿠오카로 출항했다.

이번 크루즈 입항은 지난 4월 미국 실버시의 실버 위스퍼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전남도와 여수시가 지난해 4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에 참가해 세계적 크루즈 선사인 포난과의 기항지 설명회 및 개별 면담을 통해 성사됐다. 오는 10월엔 실버 위스퍼호가 한 차례 더 입항한다.

전남도는 지난 3월 미국 포트로더데일에서 열린 '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에 참여해 기항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포난과 실버시의 2025년 기항이 기대된다.

또 전남의 아름다운 섬과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익스페디션 크루즈를 유치하기 위해 미국 실버시 (Silversea), 프랑스 포난 (Ponant) 등 럭셔리 익스페디션 크루즈선사와 구체적인 상품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익스페디션 크루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를 즐기는 최고급형 크루즈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과 방역 절차 간소화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기항지 관광상품 개발 고도화, 친환경을 중심으로 한 기항지 기반 시설 확충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전남이 비교우위에 있는 해양 및 문화관광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익스페디션 크루즈로 해외관광객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다중·국가 시설 피해복구 총무훈련

광주시가 다중 이용·국가 중요 시설 등에 대한 피해복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총무훈련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22일 시청 총무 시설에서 총무훈련 최초 상황보고회를 열었다. 총무훈련은 비상 대비 총무계획의 실효성 검증에 위해 해마다 5~6개 시도를 대상으로 차량·건설기계·기술 인력 등 자원 동원, 피해 복구 등 역량을 점검하는 지역 단위 종합훈련이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축소

해 이뤄졌지만 6년 만에 정상화됐다.

오는 25일까지 훈련 기간 농성역, 동구청에서 민관 균형 통합 훈련이 진행되며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군용 활주로 피해 복구 훈련도 이뤄진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훈련을 통해 광주시 비상 상황 임무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AI 시대 콘텐츠산업

2023 콘텐츠산업포럼

5.24 ~ 5.26

WED ~ FRI (2pm~6pm)

광화문 CKL스튜디오

DAY 1 [초석을 세움] 정책 포럼

DAY 2 [기반을 다짐] 문화·기술 융합 2차

DAY 3 [미래를 준비] 미래 콘텐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